



중국시장 주간뉴스 제 791 호 (2022.07.15)

◆ 제목을 클릭하시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<p><b>[포커스]중국 '반독점법' 개정안, 오는 8 월 1 일부 시행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베이징무역관(7.14)</span></p> <p>2008 년 시행 이래 14 년 만에 개정 인터넷 분야 규제 내용 추가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조사권과 처벌 수위 강화</p>	
<p><b>[투자진출]중국 후베이성, 외상투자기업 민원 해결 통로 마련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우한무역관(7.14)</span></p> <p>중국 성급 단위 지방정부 중 최초로 외상투자기업을 위한 별도 민원 처리 정책 시행 후베이성 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 제도 추가</p>	
<p><b>[국별주요산업]2022 년 홍콩 전시 산업 정보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홍콩무역관(7.14)</span></p> <p>홍콩 정부, 현지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참가비용 최대 1 만 홍콩 달러 지원 향후 인공지능(AI), 의료기술, 체육기술, 공급망 및 물류 등 분야에 중점을 둘 방침</p>	
<p><b>[트렌드]중국 대표 IT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ESG 도입 현황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항저우무역관(7.14)</span></p> <p>알리바바, 사용자의 착한소비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빈곤 가정과 농촌지역 교육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텐센트, 2021 년 충칭시 최초로 100%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</p>	
<p><b>[트렌드]이리와 보스딩 사례로 본 중국 ESG 의 현재와 미래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난징무역관(7.14)</span></p> <p>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힘 실어 ESG 에 대한 중국 내 인식과 관심도 지속적으로 상승</p>	
<p><b>[트렌드]중국 ESG 투자 현황과 전망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상하이무역관(7.14)</span></p> <p>중국, ESG 국제화 작업 가속화 국무원 국자위 사회책임국 정식 설립, 중앙과 국유기업을 선두로 ESG 업무 새로운 단계 추진</p>	
<p><b>[트렌드]펫미족의 등장으로 발전하는 중국 반려동물 산업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항저우무역관(7.12)</span></p> <p>세분화, 고도화되는 중국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</p>	

<p><b>[트렌드]중국은 복합쇼핑몰 전성시대</b>          새로운 쇼핑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성장세          코로나 팬데믹에도 매년 신규로 오픈하며 전국 누적 6천개 넘겨</p>	<p>광저우무역관(7.12)</p>	
<p><b>[트렌드]지속 성장중인 중국 유아식기시장 트렌드</b></p>	<p>충청무역관(7.12)</p>	
<p><b>[트렌드]중국 탄소섬유 활용 분야 확대</b>          탄소섬유 원가 하락 및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섬유 수요 확대 중          항공, 자동차 분야 주로 사용...최근 풍력발전, 수소전지 분야 활용 증가</p>	<p>톈진무역관(7.12)</p>	
<p><b>[트렌드]피부건강에 눈뜨는 중국 소비자 : 성장하는 바디케어시장</b>         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, 안정적 성장세 보여          기능별 전문제품 찾는 소비자 많아질 것</p>	<p>광저우무역관(7.12)</p>	
<p><b>[트렌드]중국 스마트 농업 시장 현황</b></p>	<p>창사무역관(7.12)</p>	
<p><b>[트렌드]중국 유기농 식품 시장동향</b>          중국 국민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 확연히 증가          특히 수입산 영유아 유기농 식품은 히트 상품으로 부상</p>	<p>다롄무역관(7.12)</p>	
<p><b>[트렌드]홍콩, 대마 성분 CBD 금지법 도입 예정</b>          2022년 연내 대마초 성분인 CBD(캐나비다이올)에 대한 수입·판매 등 전면 금지          CBD 금지법 본격 시행 전 2~3개월 유예기간 거칠 예정</p>	<p>홍콩무역관(7.12)</p>	



KOTRA 중국시장 주간뉴스



구독신청 및 거부 [hongdan@kotra.or.kr](mailto:hongdan@kotra.or.kr)